

2014.11.16. 주일오후예배 메시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되게 하라

에베소서 4:11-12

한태인 목사님

교회에 가면 첫 인상이 있다. 참사랑교회에 나는 처음 와 본다. 어떤 교회인가 굉장히 궁금했다. 방이역에서 올라오면서 길을 묻는데,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방이 지역 일대에서 참사랑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구나 해서 감사했다. 오늘 장학위원회 헌신예배인데, 인재를 키우기 위해 장학헌금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 이 교회는 정말 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구나 하는 게 느껴졌다. 목회 철학이 이렇게 분명하니까 교회 이름이 참사랑인 것 같다. 이름도 좋고, 이름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을 보니 너무나 감사하다. 특히 최정웅 목사님이 사람을 볼 줄 아는구나 싶다. (웃음) 은퇴한지 13년 되었으니, 쉽게 말해 나는 인간 폐품이다. (웃음) 알아주지를 않는데, 목사님은 나를 보고 설교를 해 달라고 하시니, 사람 볼 줄 아는 것이다. (웃음) 폐품보다 나은 것이 재활용이다. 재활용은 다시 쓸 수 있으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게 있다. 골동품이다. 몇 백 년 지나도록 조상들이 쓰던 것인데 이것은 비싸다. 비할 수 없이 가치있는 것이 문화재다. 은퇴목사도 층이 있다. 그래서 나를 문화재로 보고 모셔온 것 같다. (웃음) 여러분은 훌륭한 목사님을 모신 것 같다. 전도사 때 같이 우리 노회에서 일했는데, 목회하는 것을 보니까 잘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의정부 금오교회 담임으로 추천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35년 만에 찾아와서 인사를 하셨다. 그리고 또 오늘 불러 주셨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 한다. 의리를 아는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다. 목사가 많지만 참 목사가 있고 비슷한 목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참 목사를 모시고 있음을 정말로 감사해야 할 것이다. 꺾어 보니까 그렇다. 오늘 장학위원회 헌신예배인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말을 하고 오고 싶습니다.’ 정말 기도했다. 하나님은 헌금 많이 해서 아이들 많이 도와주라,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 뭐가 중요한가? 교회가 참 교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진짜 교회도 있지만 가짜 교회도 많다. 구원과 유병언은 목사라고도 하고 회장이라고도 하고 교주라고도 하는데, 돈을 엄청 쌓아놓았다가 객사했다. 별의별 목사가 많다. 그런데 참 교회, 참 목사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의 큰 복이다. 여러분이 큰 복 있는 자리에 앉은 것을 감사해야 한다.

장학위원회 헌신예배에 무슨 말을 해야 되겠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바로 되어서, 이 교회에서 도와주는 아이들이 커야, 올바른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돈 모아서 아이들 도와주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도 잘 한다. 김일성이 장학금을 쥐서 대학을 보내고, 그 일꾼이 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다. 국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알지 않나. 장학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교회가 장학금을 주고, 어떤 교회가 사람을 키우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인재를 키워야 하는 것이다. 나는 10월 26일 주일에 강남의 큰 교회에 가서 임직식 안수위원으로 참여하고 왔다.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장로님 열 분, 안수집사 87명, 권사 178명, 협동 취임도 몇 십 명이 있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놓고 앉아서 임직식을 했다. 11월 2일에는 또 내가 다니는 본교회에서 임직식을 했는데, 원로목사보고 설교를 하라고 해서 하고 왔다. 요즘 임직식 광고가 굉장히 많다. 향존식을 몇 백 명을 세우고 있다. 장로를 장립한다고 하는데, 장립이라는 말은 장군으로 세운다는 말이다. 군대

최고의 계급으로 세운다는 것이다. 신라시대 때 임금을 호위하는 최고의 계급이 대장인데, 그 문화가 들어와서 장로, 권사를 세울 때 장립한다고 말을 썼다. 교회에서 장군을 세우는 것처럼 생각했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장립한 사람들이 별을 단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 교회의 직분을 계급장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계급 투쟁이 나왔다. 자리다툼이 나왔다. 교회에 파벌, 분열이 생겼다.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싸운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게 되었다. 그러니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다. 몇 년째 교회는 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교회학교 없는 교회가 3천여 개라고 한다. 미래가 없는 것 아닌가. 고등부 없는 교회가 50% 이상이다. 도시의 몇 개 교회 외에는 청년부가 없어서 간다. 교회가 머지않아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이다. 서양 교회가 그렇다. 노인 몇 명 앉아있고 텅텅 비어 있다. 한국 교회가 급하게 따라가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다. 원로목사들이 모여서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직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되도록 해야 하는데, 직분을 받아 놓으니까 계급장인 줄 알고 자기 이익, 자기 영광, 자기 실권에 눈이 어둡다. 교회가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몸이 되고, 인간이 주인 된 교회가 되어 버렸다. 현실이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다.

1.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다.

바울이 주후 62년,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기독교를 기록해서 보냈다. 에베소서의 중요한 교훈이 기독교이다. 첫째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다. 하나님이 떠나면 그게 무슨 교회인가. 십자가 붙인 건물일 뿐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일 때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게 아니면 왜 교회에 오는가. 왔다갔다 목사에게 눈도장 찍으러 오는 것인가? 다 헛된 일이다. 엡2:22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 교회가 있다. 둘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야 한다.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안 된다. 왕상9:3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있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와 있겠다는 것이다. 참사랑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스파크가 일어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 와서 앉아있다가 전화 움짤하면 나가서 두세 번씩 전화나 하고 오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스파크가 일어나야 한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화하는 그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게 진짜 기도다. 허공을 치면서 염불을 외우는 식의 기도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참 기도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직통하는 연락이 되어야 한다. 이게 교회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가. 성찬예식을 하고서는 나가서 싸우고 있다. 예장통합 서울북노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한 후에 회의를 하겠다 했더니, 회의를 할 수가 없었다. 다 다투고 나가고 하는데, 그게 성노회라고 할 수 있는가. 성찬식 한 후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면서 싸우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현실이 그렇다. 교회는 하나님이 와 계시는 곳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어야 한다. 우리가 봉사하고 장학금을 주고 젊은 인재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러나 이 귀한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아니면 해

서 뭘 할 것인가?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니다. 교회는 구제를 하려고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한 방법일 뿐이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교회다. 이런 교회가 장학금을 대어 주고 키우면, 이 아이들이 다른 데로 가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 걸고 일하게 되는 것이다.

2.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나타낸다.

두 번째,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가? 오늘 본문에, 직분을 준 것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맡겼다고 했다. 목사는 그래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목사 중에서 목에 힘을 주고 당회장이라고 꺼떡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당회장이라는 이름이 나쁜 게 아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참사랑교회를 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보게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여 영화의 몸을 입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우신 몸을 보여주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믿어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야 바른 교회 아닌가?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인간의 몸만 보게 된다. 인간 싸움만 보게 된다. 그러니 교회 왔다가 다 도망가 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다. 장학위원회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보여주는 데 힘쓰고 있는가? 교회의 건물의 웅장함을 보여주려고 애를 쓴다. 교회를 반듯이, 번지르르하게 크게, 현대식으로 지어놓고 목사는 ‘내가 목회를 잘 했다, 에헴’ 하면서 개척교회는 돌아보지도 않는다. 이게 현실이다. 건물을 자랑하고, 교인을 자랑한다. 교인이 몇 명이다 하면서 자랑한다. 사회에, 국가에 보고할 때는 뺨튀기해서 보고한다. 국가가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 안다. 숫자에 몰두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교회가 이렇게 되어 가면 큰 일이다. 재정을 가지고 구체를 얼마나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데,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가.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건물도 숫자도 교회가 아니다. 몇 십 만 명이 모인다 하고, 지교회를 세우고 당회장이 혼자 다 가지고 있으면서 시무목사는 다 부목으로 처리하고, 헌금을 다 올려보내라고 하고, 그 교회 교인 숫자까지 다 자기 교인이라 하는데,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무슨 교회인가. 오늘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다.

3.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되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

세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교회에 전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 엡5:31-32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교회론이다. 영적으로 그리

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영적으로 신부다. 그러니 신랑과 신부는 일치해야 한다. 한 몸이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온 교인들은 지체가 되어, 자기 자리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건강하게 된다. 모든 기관이 자기 할 일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모든 지체는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어찌든지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한 가정, 한 식구, 그리스도의 몸, 한 공동체다.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에 이 교회는 참 사랑교회, 참 사랑하는 교회가 된다.

이 교회는 진짜 교회, 진짜 사랑하는 교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가 되는 교회, 그래서 역사를 바꿀 많은 인물을 키워내어 시대를 바꾸고, 땅 끝까지 제자를 보내어 선교하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다른 세속화된 교회, 추한 교회, 물건 쌓아놓고 싸우는 교회를 닮지 말고, 우리만이라도 참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 좋다 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한다.